목 차

제1장: 포럼 개요 및 프로그램 / 3

제2장: 포럼 참가자 약력 / 13

제3장: 포럼 발제문 / 25

1. 제1세션: 한러 수교 25주년의 회고 / 27

- 1)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
“한러 외교관계 정상화 25주년의 평가와 과제” / 29
- 2)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한러 경제교류 25년의 평가와 향후 발전 전략” / 39
- 3) 일리야 다츠코브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교수)
“한러 수교 25주년의 문화교류 회고” / 53
- 4) 바실리 조 (술러시아 고려인연합회 회장, 러한소사이어티 부회장)
“한러 공공외교 협력의 회고” / 57

2. 제2세션: 최근 유라시아 정세 변화와 한러경제협력 / 63

- 1)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실장)
“푸틴의 신동방정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접점과 협력 방향” / 65
- 2)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유라시아북한인프라센터 소장)
“유라시아 물류 통합과 한러 물류협력” / 85
- 3) 알렉산드르 페도롭스키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아태지역학과장)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한·중·러 3각 협력의 전망” / 103
- 4) 스페틀라나 수슬리나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세계경제학과 교수)
“유라시아의 전략적 변화와 한러협력” / 105

첨부: 러시아 약황 /

제1장

포럼 개요 및 프로그램

*The 2015 Korea-Russia Forum
December 4, 2015, Seoul*

2015 한러정경포럼

---

1 추진 개요

- **사업명** : 2015 한러정경포럼 *The 2015 Korea-Russia Forum*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4일(금) /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룸
- **공동주관** :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한소사이어티
- **참석인원** : 한국 35명/ 러시아 11명
- **공식언어** : 한러 동시통역
- **회의의제**: 한러수교 25주년 회고와 한러협력의 미래

금년은 한러수교 25주년으로서 지난 25년을 회고함과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위축된 한러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금년 1월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출범하였고, 중국은 신실크로드 외교 및 일대일로 경제정책과 함께 AIIB를 출범하였음. 이러한 유라시아 대륙의 통합 움직임 속에서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의 접점을 확대하는 전략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악화된 미러관계와 강화되고 있는 러중 및 러북 관계 등 최근 국제정체 변화 속에서 한러 외교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함.

- 세션1: 한러 수교 25년의 회고 (외교 분야, 경제 협력 분야, 사회문화교류 분야)
- 세션2: 최근 유라시아 정세 변화와 한러 경제 협력
- 세션3 (대사 초청 라운드테이블): 한반도 안정화 및 통일을 위한 한러 간 전략적 협력

2 프로그램

일시	내용
12.4(금)	
09:00-09:30	회의 등록 <i>신라호텔 영빈관 2층 에메랄드룸</i>
09:30-10:10	개회식 [개회사] 윤금진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이사) Alexander PANOV (러한소사이어티 부회장, MGIMO 대학교 교수) 이승철 (한양대학교 경영부총장) [축사] Alexander TIMONIN (駐韓 러시아 대사)
10:10-10:15	KF-러한소사이어티 MOU 체결식
10:15-10:30	단체사진 촬영 및 커피브레이크
10:30-12:10	세션 1: 한러 수교 25년의 회고 [사 회] Alexander PANOV (러한소사이어티 부회장, MGIMO 대학교 교수) [발 제]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 - “한러 외교관계 정상화 25주년의 평가와 과제” 염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 “한러 경제교류 25년의 평가와 향후 발전 전략” Ilya DYACHKOV (MGIMO 대학교 교수, 러한소사이어티 총무) - “한러 수교 25주년의 문화교류 회고” Vasily TSO (쑤러시아 고려인연합회 회장, 러한소사이어티 부회장) - “한러 공공외교 협력의 회고”
12:30-13:30	오찬 <i>신라호텔 본관 3층 라일락룸</i>
14:00-15:40	세션 2: 최근 유라시아 정세 변화와 한러경제협력 [사 회] 이윤호 (前 지식경제부 장관, 前 駐러시아 대사) [발 제] 이재영 (KIEP 구미·유라시아실장) - “푸틴의 신동방정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접점과 협력 방향”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유라시아북한인프라센터 소장) - “유라시아 물류통합과 한러 물류협력” Alexander FEDOROVSKY (IMEMO 아태지역학과장)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한·중·러 3자 협력의 전망” Svetlana SUSLINA (MGIMO 세계경제학과 교수) - “유라시아의 전략적 변화와 한러협력”

일시	내용
15:40-16:00	커피 브레이크
16:00-17:40	대사 초청 특별 라운드테이블: 한반도 안정화 및 통일을 위한 한러간 전략적 협력 [사 회] 기연수 (한러교류협회 회장) [패 널] 정태익(제7대), 이규형(제9대), 이운호(제10대) Alexander PANOV, Valery SUKHININ, Yuri RAYKOV
17:40-18:30	Wrap-up 세션 및 폐회 [사 회] 정태익 (前 駐러시아 대사) Valery SUKHININ (前 駐北韓 러시아 대사) [폐회사] 이규형 (한러대화 조정위원장, 前 駐러시아 대사) Alexander PANOV (러한소사이어티 부회장)
19:00	만찬 한일관 압구정점

3 한국측 참가자

*역할 및 가나다순

연번	이름	현직 / 주요 경력	비고
1	윤금진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이사	개회사
2	이승철	한양대학교 경영부총장	개회사
3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 / 前 駐러시아 대사	Wrap-up 세션 사회 라운드테이블 패널
4	이규형	한러대화 조정위원장 / 前 駐러시아 대사, 前 駐중국 대사	폐회사 라운드테이블 패널
5	이운호	한국가스연맹 고문 / 前 지식경제부 장관, 前 駐러시아대사	세션2 사회 라운드테이블 패널
6	기연수	(사)한러교류협회장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라운드테이블 사회
7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	세션1 발제
8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	세션1 발제
9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실장(부원장)	세션2 발제
10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유라시아북한인프라센터 소장	세션2 발제

연번	이름	현직 / 주요 경력	비고
11	강봉구	한양대학교 HK교수	
12	기계형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13	김병호	매일경제 기자	
14	김영진	한양대학교 HK교수	
15	김진규	고려대 러시아·CIS 연구소장, 고려대 교수	
16	나원창	외교부 유라시아과 과장	
17	나희승	한국유라시아 학회 회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계연구팀장	
18	박상남	한신대 교수 / 前 한국유라시아학회 회장	
19	박영은	한양대학교 HK교수	
20	변현섭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21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22	서상국	한국 슬라브·유라시아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교수	
23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연구센터 센터장	
24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	
25	이상준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26	이세웅	한러문화예술협회 이사장	
27	이태림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변호사	
28	임성준	리인터네셔널 특허법률사무소 고문 / 前 駐캐나다 대사, 前 외교안보수석, 前 KF 이사장	
29	장덕준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30	정병선	조선일보 차장	
31	정세진	한양대학교 HK교수	
32	정여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번	이름	현직 / 주요 경력	비고
33	채 욱	경희대학교 교수 /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34	최재근	충청북도 국제자문관 / 前 실크로드재단 이사장, 前 駐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 駐블라디보스톡 총영사	
35	홍완석	한국외대 국제지역학대학장 한국외대 러시아학과 교수	

4 러시아측 참가자

연번	이름	현직 / 주요 경력	비고
1	Alexander PANOV	MGIMO 대학교 외교학과장, 러한소사이어티 부회장 / 前 주한 러시아 대사	라운드테이블 패널, 세션1 사회, 폐회사
2	Vasily TSO	고려인연합회 회장, 러한소사이어티 부회장	세션1 발제
3	Valery SUKHININ	MGIMO 대학교 교수 / 前 駐북한 러시아 대사	라운드테이블 패널, Wrap-up 세션 사회
4	Yuri RAYKOV	MGIMO 대학교 교수 / 前 駐라오스 러시아 대사	라운드테이블 패널
5	Dmitry STRELTSOV	MGIMO 대학교 동양학부 학장	
6	Svetlana SUSLINA	MGIMO 대학교 세계경제학과 교수	세션2 발제
7	Alexander FEDOROVSKY	IMEMO 아태지역학부 학장	세션2 발제
8	Marina SAPRONOVA	MGIMO 대학교 교수	
9	Ilya DYACHKOV	MGIMO 대학교 교수, 러한소사이어티 총무	세션1 발제
10	Anna SINYAKOVA	MGIMO 대학교 조교수	
11	Alexander TIMONIN	주한 러시아 대사 / 前 駐북한 러시아 대사	개회식 축사

5 역대 포럼 개최 실적

구분	기 간	장 소	참가인원	회 의 의 제
1차	'99. 3.22~23	모스크바	72명 -한국측: 22명 -러 측: 50명	○ 한러 국내정세 변화와 외교정책 ○ 동북아 안보와 한러협력 ○ 한러 양국간 경제협력 ○ 양국간 문화, 교육, 관광, 언론협력
2차	'00. 9.28~29	서울	45명 -한국측: 29명 -러 측: 16명	○ 수교 10주년에 즈음한 한러 양국관계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안보와 한러간 협력 ○ 한러 경제·통상협력 ○ 한러 문화, 학술, 언론교류 현황
3차	'01. 9.27~28	모스크바	71명 -한국측: 21명 -러 측: 50명	○ 한러양국 정치경제정세와 한러관계 전망 ○ 한러 경제협력 방안 ○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러협력 ○ 한러 문화·학술·언론 교류확대방안
4차	'02. 9.30~10.1	서울	47명 -한국측: 29명 -러 측: 18명	○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러협력 증진 ○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동북아 역학관계 ○ 한러간 경제협력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양국간 학술, 문화 교류 협력 증진
5차	'03. 10.16~17	모스크바	35명 -한국측: 15명 -러 측: 20명	○ 한러양국의 대내외정세, 북한문제 ○ 한러간 정치대화 ○ 한러간 경제협력 ○ 양국간 과학기술, 문화 협력관계
6차	'04. 10.25~26	강원도 평창	34명 -한국측: 23명 -러 측: 11명	○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러간 협력 ○ 한러간 경제통상협력: '04 9월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방안 ○ 한러간 과학기술 협력 ○ 한인 러시아 이주 140년 계기 러시아 한인의 지위관련 한러간 협조
7차	'06. 3.27~28	모스크바	69명 -한국측: 14명 -러 측: 55명	○ 한반도 안보 및 안정 확보 방안 ○ 한러간 무역,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 방안 ○ 한러간 문화 및 인도적 분야에서의 협력
8차	'07. 5.28~29	서울	40명 -한국측: 24명 -러 측: 16명	○ 북핵 6자회담과 대북에너지 지원방향 ○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개발 전략과 한러 경제 협력 프로젝트 ○ 남북러3각 경제협력 방안-북한 산업 시설 및 나진항 현대화 등

구분	기 간	장 소	참가인원	회 의 의 제
9차	'08. 5.29~30	모스크바	41명 -한국측: 15명 -러 측: 26명	○ 한-러 신정부의 정책방향과 한-러협력 ○ 동북아 에너지 안보와 한-러협력 - 동북아에너지 안보환경과 남북러 3각 에너지 협력 - 한-러 에너지 협력의 현황과 전망 - 러시아 극동자바이칼 개발프로그램과 한국의 참여방안 ○ 인문학 분야에서의 한-러 교류의 문제와 전망
10차	'09. 5.28~29	서울	31명 -한국측: 21명 -러 측: 10명	○ 한-러 안보협력과 지역안보체제 ○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새로운 대안의 모색 ○ 한-러 경제협력과 지역경제협력 ○ 한-러 협력의 다변화-사회문화 분야
11차	'10. 5.29~6.1	상트 페테르부르크	34명 -한국측: 17명 -러 측: 17명	한-러시아 수교 20주년: 경험, 성과 그리고 전망 ○ 21세기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한-러 경제협력의 성과와 문제점 ○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국의 경제협력 ○ 한-러 문화·교육·언론 협력
12차	'12. 11.20~23	서울	38명 -한국측: 28명 -러 측: 10명	한-러 신정부의 바람직한 협력 방향과 과제 ○ 동북아/한반도 정세와 한-러관계 ○ 러시아 극동 개발 협력 ○ 러한소사이어티 발족과 한-러 공공외교의 방향
13차	'14. 10.30~31	모스크바	51명 -한국측: 15명 -러 측: 36명	국제환경 변화와 한-러 협력의 새로운 과제 ○ 동북아/한반도의 최근 정세와 한-러 외교협력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러 경제협력 ○ 종합토론

제2장

포럼 참가자 약력

*The 2015 Korea-Russia Forum
December 4, 2015, Seoul*

<한국측 참가자>

윤 금 진 국제교류재단 교류이사

윤금진 교류이사는 이화여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영어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화관리학(박물관·미술관경영)석사, 한양대 문화인류학 박사(박물관학)학위를 취득하였다. 1985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국제문화협회에서 근무하였으며, 199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교류부장, 출판부장, 한국학사업부장 등 다양한 업무를 거쳤고, 2005년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를 개관, 초대 소장을 맡았으며 올 9월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재단 위싱턴사무소장을 역임하였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이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관련 자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평가위원 등 다양한 문화행정 및 문화예술 정책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승 철 한양대학교 경영부총장

현재 한양대학교 경영부총장으로 학업 및 전략기획, 기관자금관리, 연구, 국제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 University of Kansas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University of Illinois Merriam Laboratory for Analytic Political Research에서 연구위원(1985-89), University of California, Mathematical Behavioral Science대학원 교수(1989-97),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1999-2006),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2000-2012), 국제교류위원장(2012-2014) 직을 역임하였다. 주요 논저로 “한반도와 주변4강”,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 “*East Asian Community: Visions and Prospects*”, “*Elections in Japan, Korea, and Taiwan under the Single Non-Transferable Vote: The Comparative Study of an Embedded Institution*”, “Polarity and Stability in the International System: Is Bipolarity More Stable Than Multipolarity?”, “New International Order in the Twenty First Century,” “The Friend of My Enemy is My Enemy: Modeling Triadic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lexis de Tocqueville's Paradox and Relative Deprivation.” 등이 있다. 신문과 간행물에 국제문제에 대한 칼럼을 기재하였으며, 미국, 싱가포르, 한국에서 정치분석가로TV 프로그램에 자주 초대된 바 있다.

정 태 익 한국외교협회 회장, 전 주러 한국대사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Diploma를 취득하였다. 주이집트 대사, 외교부 기획관리실장, 주이탈리아대사,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주러시아 대사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 규 형 한러대화(KRD) 조정위원장, 전 주러 한국대사

1951년 10월생으로 서울고(1970)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1974)를 졸업하였다. 1974년 외무고시 8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이래, 주일본대사관 정무과장, 본부 유엔과장, 유엔대표부 공사 참사관, 본부 공보관 및 국제기구 정책관을 마치고, 1999년 여름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로 부임, 2년 반 북경에서 근무하였다. 해군 장교로 군 복무(76.3-79.7)한 이 대사는 2002.8 주 방글라데시

대사로 2년간 근무하였고, 2004.9-05.9 간 외교부 대변인을 거쳐, 2005.10-06.11 간 외교부 제2차관으로 활동하였다. 이어 이 대사는 2007.4-10.2 간 주 러시아, 2011.5-13.6 주 중국 대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때로는 마음 가득히’(2005) 등 3권의 시집을 발간한 이 대사는 2013. 9월 이래 삼성경제연구소의 상근 고문으로 일하면서, 같은 해 11월부터 한러대화(KRD) 한국 측 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윤 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 전 주러 한국대사

이윤호 박사는 현재 한양대 자원공학과 석좌교수이며, 2008년 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초대 지식경제부 장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주러시아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했다. 2012년 1월부터는 경제통상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에 합류하기 전에는 한국의 우수한 Think Tank 중 하나인 LG경제연구원 원장으로 13년간 근무 했고, 그 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했다.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에서 1977년 행정학 및 정책결정학 석사, 1984년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저서로는 밀레니엄 리포트(공저) 등이, 기고문 및 신문 칼럼으로는 ‘러 경제 현대화에 한국 적극 참여 할 때’ 등 300여건이 있다.

기 연 수 (사)한러교류협회 회장

현재 한국외대 러시아어과 명예교수이며, (사)한러교류협회 회장 겸 (사)한국학술협의회 이사, 러시아연방 대통령실 국가행정아카데미(РАНХиГС) 정회원 겸 학술지 편집위원이다. 또한 한국외대 러시아어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대학원장, 러시아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자문위원,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사)bbb코리아 러시아어 위원장을 역임했다. 1983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일리노이대학 러시아센터 연구교수, 모스크바국립대학(MGU) 및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MGIMO)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대표저서는 공저로서 <러시아, 위대한 강대국 재현을 위한 여정>(한국외대 출판부, 2009), 발표논문 및 기고문으로는 “러시아의 新국가전략”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발행, <슬라브研究> 제22-1권, 2006년)외 약 40여 편이 있고, “푸틴을 보면 러시아가 보인다”(2014.1.21, 일요신문)외 약 30여 건의 신문칼럼이 있다.

엄 구 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현재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인 엄구호 교수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정부규제의 다학문적 이해’,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학’등이 있으며, Global Economic Review, 국제정치논총, 슬라브학보, 중소기업 등 국내외 학술지에 40 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하면서 인문한국사업 유라시아 연구사업단의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다. 전경련의 자유경제출판문화상 등을 수상했으며 한국정치학회의 한러학술교류위원장, 동북아경제학회의 러시아 및 전환기 경제위원장, 한국러시아문화회 연구이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정책포럼 부회장, Journal of Eurasian Studies 편집위원장, 중소기업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

현재 국립외교원 교수이며,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한국 슬라브·유라시아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1990년 5월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 및 발표논문으로는 『구소련지역의 민족분쟁의 해부』 등 수개의 저서와 러시아, 중앙아시아, 한·러 관계, 러·북 관계 등에 관한 100개가 넘는 논문과 신문칼럼이 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실장(부원장)

현재 한국의 주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구미·유라시아실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그는 현재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이자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원의 명예교수이다. 그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대한민국 최초의 소련교환연구원을 역임한 바 있는 그는 몽골 칭기즈칸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이재영 박사는 20년 이상 경제학자로서 전문적인 경험을 쌓아왔고,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를 역임하였다. 그는 옥스퍼드대학교 울프슨 칼리지, 하버드대학교 데이비스 러시아 및 유라시아연구센터, 미시간대학교 러시아 및 동유럽연구센터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조정실장, 민주평화통일회의 자문위원, 중앙아시아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에 대한 한국의 경제협력 전략에 관한 수많은 연구를 수행하였고, 러시아 및 유라시아 경제, 한국과 유라시아의 경제협력 등과 관련된 40편 이상의 학술논문과 30권 이상의 저서를 단독 혹은 공동으로 국내외 학술 저널과 출판사에 게재 및 출판하였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유라시아북한인프라센터 소장

현재 한국교통연구원 유라시아북한인프라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일본 쓰쿠바대학교 초빙교수, 일본 교토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남-북-러 철도전문가회담 대표, 동북아시아위원회 전문위원, UNESCAP National Expert을 지냈으며, 현재 통일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한국시베리아학회 부회장, 북한경제포럼 부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저서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 방향](한국교통연구원, 2014), [환동해경제학](블루&노트, 2015)가 있다.

김진규 고려대학교 러시아·CIS 연구소장

현재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교수이자 러시아·CIS 연구소장이며,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러대화 사무국 사무차장을 역임하였고, 지금은 한러대화 차세대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계명대학교 토르플 한국센터 소장을,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했다. 또한 계명대 러시아어문학과 교수 및 한국슬라브학회 편집이사, 한국러시아문학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1999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에서 러시아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발표논문 및 기고문으로는 “러시아어에 반영된 러시아인의 종교적 심성” (동서문화, 2004년)외 수십 편이 있고, “현대러시아읽기”(고려대출판부, 2010년) 등의 저서가 있다.

나 원 창 외교부 유럽국 유라시아과장

2015년 2월부터 대한민국 외교부 유럽국 유라시아과장직을 맡고 있다. 외무고시 31회 출신으로 1997년 외교부에 입부한 나원창 과장은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주러시아 대사관, 주미 대사관,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나 희 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며, 연구원내에서 기획부장, 대륙철도연구실장, 남북철도사업단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UNDP GTI의 National Consultant,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북한정책포럼 운영이사, 한국철도공사 해외남북분과위원회 위원장, 한러대화 경제통상분과 위원, 한국유라시아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7년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6년 남북러철도협력회의 위원, 2004년 ASEM 철의 실크로드 심포지움 사무국장, 2001-2년 한러교통협력위원회 위원, 2001-5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1996년 KAIST에서 공학박사학위와 1997년 프랑스 프와티에대학에서 D.E.P.S.U.P.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남북 및 대륙철도 정책·기술개발이다. 이와 관련한 신문칼럼, 논문, 기고문, 저서가 다수 있다.

박 상 남 한신대 유라시아 연구소장

현재 한신대 유라시아 연구소장,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3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유라시아학회 회장, 2006년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2011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2008년 국회 외교통상위 자문교수, 2005년 한국정부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수립을 위한 테스크포스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유라시아 협력 전략(공저, 2015)',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공저, 2011)', '현대 중앙아시아 (2010)', '푸틴의 러시아(공저, 2007)'외 다수. 주요 논문으로는 "탈 냉전기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과 함의(2014)", "상하이협력기구의 평가와 전망(2014)", "러시아 중앙아시아 관계(2013)"외 다수가 있다.

서 동 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다. 한국정치학회, 한국국가정보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유라시아슬라브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7년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연세대, 한국외대, 명지대 등에서 강의를 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러시아 정치·외교, 한·러, 북·러관계, 유라시아국제정치이며, 저서로 <러시아현대정당사>(2014)가 있으며, 발표논문으로는 "러시아 푸틴 시기 정치체제의 특징", "푸틴집권 3기 대외정책 전망과 대러 대응전략", "남북러 경제협력과 북러관계" 외 다수가 있다.

서 상 국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회장

현재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러시아어과 교수이며, 2015년 한국 슬라브-유라시아 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상기 학과 학과장을 거쳐 사법시험, 외무고시, 수능 출제위원으로 활동했다. 1992년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러시아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바를람

발표논문으로는 살라모프의 시 ‘귀족 부인 모로조바’ 연구” ((슬라브학보, 29권 4호, 2014), “Varlam Shalamov’s Poetic Theory and Practice” (슬라브학보, 27권 2호, 2012) 등 수십편이 있으며 저서로는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시킨 시”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0) 외 다수가 있고 역서로는 세르게이 도블라토프의 “외국 여자”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2), 톨스토이 “부활” (작가정신, 2008) 등이 있다.

신 범 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장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며, 서울대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장이다.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했고,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연구위원 및 KBS 객원해설위원을 역임했다. 미래전략연구원, 한반도평화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 등의 연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을 거쳐 러시아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워싱턴 대학 헨리 잭슨 스쿨의 방문교수를 지냈다. 저작으로는 “Post-Cold War Russian foreign policy and the Korean Peninsula,” “러-중관계로 본 ‘전략적 동반자관계’: 개념과 현실” 외 80여 편의 논문과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협력』,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외 10여 권의 저술이 있다.

엄 치 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MBA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부에 입사하여 현재 국제본부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전경련 국제본부에 근무하는 동안 2005년에는 APEC T/F 팀장을 맡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CEO Summit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08년에는 건국 60년 기념사업 T/F팀장을 맡아 청소년 국토대장정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전경련 국제본부에서의 20년 이상 활동을 인정받아 2006년에는 총리표창, 그리고 2012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전경련 국제본부장 자격으로 APEC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OECD 기업인자문위원회(BIAC)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맡아서 한국의 민간경제 외교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 상 준 국민대학교 교수

현재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이며, 2015년 삼성경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과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편집이사, 한리대화 경제통상분과 간사위원을 겸하고 있다. 1999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IMEMO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University of Washington 초빙교수, 2012년 국민대학교 국제학부장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외래교수 및 한리비즈니스협의회 자문위원, 한국슬라브학회 총무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 홍보이사, 감사 등을 역임했다. 발표논문 및 기고문으로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구심력과 원심력” (서울대학교 발행, 러시아연구, 2014년 겨울호)외 약 100편이 있고, “유라시아 친선특급을 타고 통일로”(2015.6.29., 아주경제)외 약 10건의 신문칼럼이 있다.

이 세 응 한러문화예술협 이사장

현재 한러문화예술협회 이사장이며 학교법인 신일학원(신일중·고등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명예이사장이다. 숙명여자대학교 이사장(1995-1998),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2004-2010)를 역임하였다. Air Products Korea Inc. 대표이사 사장(1978-1999), 한국유리공업(주) 대표이사 회장(1996-2000)을 역임하였다. 구미통상 사절단장(1975-1997), 국민은행 사회 이사를 역임하였다(2001-2002). 러시아 Moscow State Conservatory(Moscow P.I. Tchaikovsky Conservatory) 재단 이사이며, 미국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RISD)의 종신명예이사이다. 국립발레단 이사장(2002-2010)과 예술의전당(2003-2012) 이사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두 기관의 명예이사장이다. 국민훈장 무궁화장(2002), 러시아 친선훈장(1999), 푸쉬킨메달(2011)을 수훈하였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박사(1976), 러시아 St. Petersburg University에서 명예경영학박사(1994), 미국 Indiana University에서 명예법학박사(1999)를 받았다.

이 태 립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선임외국변호사(파트너)이다. 이 변호사는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MGIMO) 법대를 Red Diploma(우등)로 졸업한 후, 2005년부터 2012년 까지 러시아 로펌인 <Alexander Dobrovinsky and Partners>와 다국적 컨설팅 회사인 KPMG International의 러시아 법인에서 근무했는데 2011년에는 KPMG Russia/CIS 한국담당 총괄 이사에 임명되었다. 2004년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연방대법원에서 연수 했는데, 그 기간 동안 한국과 러시아 대법원 간의 사법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지는데 많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변호사는 한-러 수교 초기에 도려하여 1998년 모스크바국립대 노어노문학과 학부/석사 통합과정 졸업했다. 1998-2001년 주한 러시아대사관에 근무하는 기간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했고, 2014년에는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방위사업과 외래교수로 활동한 있다.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에서 "러시아가스의 한국공급사업에서의 북한통과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동 박사논문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한국의 관련기관에 정책보고서로 정식 제출되기도 했고, 관련 주제의 논문 "에너지원의 제3국 통과와 관련한 분쟁해결에 관한 법제 연구"는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되는 러시아 유일의 법학지인 "State and Law" 2011년 6호에 실렸다. 이외에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 관련 국제법적 문제에 관한 논문들과 북러관계 및 남북러 관계에 관한 칼럼들이 있다.

임 성 준 리인터네셔널 특허법률사무소 고문

1971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포드대 및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수학했다. 1971년 외무부에 입부하여 직업 외교관으로서 주로 대일본, 미국 외교일선에서 활동하였고, 주 이집트 대사, 주 캐나다 대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역임하였으며, 특히 지난 2000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준비 본부장을 맡아 한국 최초의 다자정상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2007~2010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브랜드 제고와 한식 세계화 등에 앞장서며 공공외교의 기틀을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현재는 Lee International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임성준 전 대사는 한국외국어 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를 역임하였고 한·캐나다 연례포럼 한국측 대표, 서울국제포럼 회원, 서울 국제음악제 명예조직위원장, 뉴욕소재 세종솔로이스츠 이사장,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문회장 등으로 국제교류와 사회기여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부터 홍조근정 훈장을 스페인과 헝가리 정부로부터는 문화훈장을 수여 받았다.

장 덕 준 국민대 유라시아연구소 소장

현재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이며 유라시아연구소 소장이다. 2008년 3월~2010년 2월에 국민대 대외교류처장, 2012년 3월~2014년 2월에 국민대 사회과학대학장을 역임했으며, 2014년 1월~12월에 한국슬라브학회 회장을 지냈다. 2013년 7월~2015년 6월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2014년 9월~2015년 8월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1996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저서로는 <자본주의로의 험난한 여정: 사유화를 통해 본 러시아의 체제전환>(2009년 한울아카데미,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중러관계와 한반도>(2012년 한울아카데미, 편저), <현대 러시아의 해부>(2014년 동북아역사재단, 편저) 등이 있고 역서로는 <러시아 정치의 이해>(2014년 한울아카데미)가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대한 푸틴의 대외정책과 CSTO” 『중소연구』 제37권 3호(2013),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동북아” 『슬라브학보』 제29권 1호(2014), “‘Eurasia Initiative,’ ‘Neo-Eastern Policy,’ and ROK-Russia Relations,” *Eurasian Review*, Vol.7 (2015) 등이 있다.

정 병 선 조선일보 디지털 뉴스본부 차장

현재 조선일보 디지털 뉴스본부 차장이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모스크바 특파원을 역임했다. 귀국 후 국제부 기획취재부 사회부를 거쳤다. 특파원 재임 중 체첸 내전 취재(3회)를 통해 전쟁의 잔혹함을 알렸고, 러시아 에너지 보고(寶庫)이자 러시아 북쪽 땅끝마을인 시베리아 야말반도 두 차례 르포를 통해 러시아와 한국의 에너지 협력과 한국의 에너지 수입 다변화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2014년 조선일보 대형 기획 ‘유라시아 자전거 평화 대장정’의 실무 책임자로 원정대와 함께 유라시아 15,000km를 자전거로 횡단하는 데 기여했다. 2000년 코소보 전쟁 당시 현장 보도와 ‘구소련 지역을 떠도는 1만여 카레이스키 난민들’ 시리즈로 국내 최고 언론상인 관훈클럽 국제보도상을 수상했으며, 2010년 야말반도 르포를 통해 ‘얼음 녹는 북극해 신대륙을 잡아라’ 시리즈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시베리아 땅끝에서 펼쳐지는 21세기 에너지 전쟁(2011)’, ‘러시아의 북극진출과 북극해의 몸부림(2011)’, ‘유라시아 15,000km 두 바퀴의 기적(2015)’이 있다.

정 여 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59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튀빙겐대학교에서 경제학석사, 뮌헨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동 연구원에서 연구조정실장,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및 부원장을 역임했다. 동구 국가들의 체제전환, 러시아의 경제발전 및 한러경제협력,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냈으며,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 상근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채 욱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재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이며, 2008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2008-2011년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2010-2011년에는 국민경제자문위원, 2009년에는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주요 부처의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1990년 미국 미시간대학교(Ann Arbor)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그 이후 23년 동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재직했으며, 2013년 9월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경희대학교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미 FTA이후의 대미통상정책 방향과 과제』(2007, 공저), 『러시아의 WTO가입과 무역투자 증진 방안』(2007, 공저),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2006, 공저), 『한국경제의 이해』(2005, 공저), 『국제통상론』(1998, 공저) 등 20여권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논문 및 기고문이 있다.

최재근 충청북도 국제경제통상 자문대사

경동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석좌교수이며, 충청북도 국제경제통상자문대사로 재직 중이다. 실크로드재단 이사장,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고문과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 2005 APEC 지원대사,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 모스크바 총영사를 역임하고, 미국, 영국, 이태리, 파키스탄, 우간다 등에서 한국 고위외교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서울대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런던대학교에서 공부하였다.

홍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주임교수이자 국제지역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5년 현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고, 한러대화(Korea-Russia Dialogue) '정치와 국제관계'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2016년엔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차기회장직을 수행한다. 2009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장 겸 인문한국(HK) 사업단장을 역임했다. 이밖에 상해 복단대학교 초빙 교수, 한국국제지역학회 편집이사, 한국동유럽발칸학회 연구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 러시아·중앙아시아분과위원장, 한국정치학회 한국·러시아학술교류특별위원장, 조달청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1998년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학교(MGIM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발표논문 및 기고문으로는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조건과 과제”(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발행, 『슬라브연구』, 2015년 가을 호) 외 70여편이 있고, “대러 인식의 ‘프레임’ 전환이 필요한 이유”(2015.10.13, 『한겨레신문』) 외 40여건의 신문 칼럼이 있다.

<러시아측 참가자>

Alexander Panov 러한소사이어티 부회장,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교수, 전 주한 러시아대사
현재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의 외교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미국과 캐나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자 러한소사이어티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한국(1992-93), 일본(1996-2003), 노르웨이(2004-06)주재 러시아 대사, 러시아 외무차관(1994-96)을 지냈다. 외교부 명예회원으로 명예훈장과 메달을 수여받았다. 국제관계에 대한 다수의 저서를 저술 및 감수했다.

Vasily Tso 전러시아 고려인연합회 회장, 러한소사이어티 부회장
현재 전러시아 고려인연합회 회장과 러한소사이어티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대통령산하 다민족 위원회의 일원이다. 소련 인민대의원에 선출되었고(1989), 통상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1992년부터 기업가로 지냈으며 한국기업 “롯데”와 러시아-한국 문화센터를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2014).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과 러시아 정부로부터 우호훈장을 수여받았다.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유라시아 자동차 대장정 “러시아-한국 2014”프로젝트와 2004년, 2014년에 고려인 러시아 이주 140주년과 150주년 기념행사를 기획하였다.

Valery Sukhinin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 교수, 전 주한 러시아대사
김일성종합대학(1973)과 모스크바국립대학(1976)을 졸업하고 현재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1973년부터 2012년까지 외무부에 소속되어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1973-1978, 1985-1992, 2007-2012)와 한국 주재 러시아 부대사 (1995-2000, 2004-2006)를 역임하였으며 러시아 외무부 한국부서장과 아주 제1부서 부국장,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서 러시아대표단장과 주재 북한 특명전권대사를 역임(2006.12-2012.04)하였다.

Yury Raykov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전 주라오스 러시아 대사
현재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의 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74년부터 2008년까지 외무부에서 재직하였고, 아세안지역장, 아주 제2부국장(1997-2002), 주 라오스 대사(2002-07)를 역임하였다.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에서 국제관계학과장과 대외관계학부 교수(2008-12)직을 맡았다. 제주도(2009)와 상트페테르부르크(2010)에서 열린 한러포럼을 주관했다.

Dmitry Streltsov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동양학부 학장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 동양학부 학장, 동양학 연구소의 일본학센터 수석연구원, 고등경제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일본의 국내 및 국제 정치, 전후 일본사, 러일관계, 아태지역 경제통합과 안보문제이다. 다섯 권의 단행본을 포함한 2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일본”연보의 편집장 직을 맡고 있다.

Svetlana Suslina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세계경제학과 교수

경제학 박사,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의 수석연구원이며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세계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72년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를 졸업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동아시아 경제협력, 특히 한반도 경제협력이다. 남북한의 주요문제와 북동아시아의 상황과 관련한 다수의 단행본과 논문을 발표하였다.

Alexander Fedorovskiy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아태지역학부 학장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1977)하고 1977년부터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에서 교수로 재직하여, 1996년부터 현재까지 아태지역학부 학장직을 맡고 있다. 2008년에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하였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현대한국학센터에서 사무국장과 “KoRusForum”저널의 편집 위원 직을 역임하였다.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2002-04) 러시아 기업가연합의 아태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2015). 2008년부터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의 편집 자문 위원직을 맡고 있다.

Marina Sapronova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동방학부 교수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 동방학부 교수로 1994년부터 아랍지역의 역사와 외교를 가르치고 있다. 이집트, 프랑스, 알제리, 요르단, 튀니지와 레바논에서 공부하였으며 아랍지역의 역사, 정치, 법률 제도를 비롯한 중동, 무슬림 정치문화, 이슬람의 국제관계와 안보에 대한 많은 서적과 논문을 (공동)저술하였다.

Ilya Dyachkov 러한소사이어티 총무,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교수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의 일본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학부의 부교수이자 러한소사이어티 총무 직을 맡고 있다.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2009)와 대학원(2011)을 졸업했고,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2015). 2007년과 2008년에 경희대학교에서 수학했고, 2011년부터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반도 핵문제와 북동아 비핵화이다. 러한소사이어티 총무로써 2011년부터 연례 한러포럼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공동 주관하였다.

Anna Sinyakova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교수

경제학 박사, 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와 몽골어 학과 조교수이다. 2005년부터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였으며, 고등경제대학에서 한국 경제를 가르쳤다. 국내, 국제 컨퍼런스에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였으며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개발한 국제여론조사인 한반도안보지수(KPSI)(2011-13)와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인 “북한의 미래”(2014)에 참여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반도 경제, 한반도의 현재 상황, 지속가능한 개발, 한-러 관계, 남북러 3각 협력이다.

제3장

포럼 발제문

*The 2015 Korea-Russia Forum
December 4, 2015, Seoul*

제1세션

한러 수교 25주년의 회고

사회:

알렉산드르 파노브 (러한소사이어티 부회장)

주제발표:

고재남 “한러 외교관계 정상화 25주년의 평가와 과제”

엄구호 “한러 경제교류 25년의 평가와 향후 발전 전략”

일리야 다츠코브 “한러 수교 25주년의 문화교류 회고”

바실리조 “한러 공공외교 협력의 회고”